

왜, 유럽 5개국인가?

서경전*

이 책은 중·고등학생과 같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이해교육을 위해 집필된 것이지만 일반인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읽을거리를 제공해 주고, 시중에 나와 있는 수많은 유럽 관련 서적에서 흔히 다루지 않은 내용 중에서 핵심적이고 흥미 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감(五感)을 충족시켜주는 문화적 사례와 그 기원, 근현대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주요한 역사적 사건에 대해 간단하고 명확하게 알려 주고 있다.

우리는 현재 민주주의와 인권, 산업화와 자본주의, 시민운동, 복지사회, 과학 기술과 문화 예술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유럽의 이념과 제도에 영향을 받고 있고, 의식주를 비롯한 교통수단, 통신수단, 교회와 성당, 발렌타인데이 같은 축제 등 유럽이 우리에게 전해 준 것을 매우 친숙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유럽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유럽의 근대화와 세계화 주역들을 탐색하는 가운데서 유럽의 근·현대사를 이끌어 온 다섯 국가인 이탈리아, 에스파냐, 영국, 프랑스, 독일 을 중심으로 큰 줄기를 잡아가면서 살펴보면 유럽을 이해하고, 나아

* 안산 성포중 사회과

가 세계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집필하게 되었다고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전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자연환경, 2. 역사, 3. 국가별 주요 역사적 사건, 4. 독특한 문화, 5. 주요 지역 탐색의 순서로 5개국을 다루고 있고 마지막 장에서 왜, 유럽 여러 나라 중 5개국이 중요한 국가로 채택되었는지의 이유와 그들의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 식민 지배와 제국주의와 함께 마지막으로 새로운 대안이 되고 있는 유럽 연합의 평화적 공존 가능성에 대해 희망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첫 번째 나라인 이탈리아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르네상스는 봉건사회와 중세 문화의 쇠퇴 속에서 새로운 근대 사회와 근대 문화의 첫 번째 싹이라고 할 수 있다. 르네상스가 이탈리아에서 시작되게 된 이유는 중세에서 오랫동안 매몰되어 있었던 고대 그리스·로마 문화의 부흥을 발판으로 인문주의적 근대 문화의 창조를 지향하는 문화 운동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문화적 분위기가 이미 조성되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피렌체를 비롯한 베네치아 등이 지중해 무역을 통한 상업 활동으로 막대한 부를 쌓은 메디치 가문과 같은 귀족들과 상인들이 학문과 예술에 관심을 보이며 재정적 후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두 번째 나라인 에스파냐는 서유럽 국가들 중 유일하게 이슬람의 지배를 받아 유럽과 이슬람의 혼합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지리상

발견으로 대서양 시대를 열면서 지리적으로 세계화의 기원을 만들어 낸 나라라고 소개하고 있다. 가장 먼저 신항로 개척에 뛰어든 포르투갈에 이어 마젤란과 콜럼버스를 지원하여 동방으로 가는 신항로를 개척하는 도중에 신대륙을 발견하였다. 그곳에서 다양한 산물(차, 향료, 담배, 감자, 코코아, 옥수수 등)들이 유럽으로 반입되었고, 특히 감자를 비롯한 구황 작물과 고기의 누린내를 제거해주고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게 한 후추의 등장은 가히 획기적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아메리카 진출로 인해 인디언들의 마야, 잉카 문명이 파괴되고 정복되어 유럽 중심의 문화로 재편되고 말았다는 어두운 일면도 소개하고 있다.

세 번째 나라인 영국은 일찍부터 의회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나라이다. 하지만 ‘해가지지 않는 나라’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넓은 지역의 식민 지배와 제국주의를 선도한 나라라는 오명이 함께 하기도 한다. 또한 최초의 산업 혁명과 경제적 발전이라는 영광과 함께 환경오염과 노사 문제의 근원지라는 양면성을 지닌 나라이기도 하다.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이유는 모직 공업이 일찍부터 발달하여 자본의 축적, 풍부한 노동력, 정치적 안정,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는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증기 기관을 발명하여 방적기, 증기선, 증기 기관차에 응용하면서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다.

또한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인 영어의 모국으로 세계화 시대에 세계 공용어로서 그 발전 가능성

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네 번째 나라 프랑스는 시민 혁명을 일으켜 절대 왕정을 무너뜨린 세계 최초의 나라이다. 그 후 나폴레옹의 영향으로 자유, 평등, 박애 같은 사상을 유럽 나라에 널리 전파하기도 했다.

프랑스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역시 패션인데 너무나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들의 브랜드 가치는 해를 거듭할수록 올라가기만 하는 것 같다.

영어로 인해 세계 공용어의 위치를 빼앗긴 상태이지만 한때 프랑스어는 유럽 공식 언어로 사용되었고 지금도 우아하고 고급스런 이미지는 그대로인데 그들의 자국 언어사랑은 정말 유명하다. 프랑스의 예술 뿐 아니라 첨단 과학 기술도 매우 발달해 있는데 상업용 우주시장의 50%를 선점한 선두 주자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 나라인 독일은 무엇보다 세계 1, 2차 대전을 일으킨 주범으로 세계 인류에게 큰 충격을 안겨다 준 나라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후 엄청난 배상금을 지불했지만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경제 발전을 이루어 현재 유럽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유럽 연합을 이끌어가는 가장 큰 주역이기도 하다.

역사적으로 독일은 르네상스 시대 때 종교 개혁을 가장 먼저 일으켜 유럽인들의 정신세계를 뒤흔들어 놓았는데, 바로 마르틴 루터가 교황 레오 10세의 면죄부 발행의 부당함을 알리는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했다.

현대사에서는 그 예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획기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는, 동독과 서독의 통일이 이루어졌는데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상호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서독은 명분을, 동독은 실리를 추구하면서 과학 기술,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점진적으로 교류를 확대해 나가다가 1990년 전격적으로 통일을 완료하게 되었다.

마지막 장에서는 왜, 유럽인가? 왜, 유럽 5개국인가를 밝히고 있다.

‘유럽의 문화는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로부터 시작되었고, 에스파냐의 신항로 개척으로 세계와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산업혁명과 시민 혁명으로 근대 유럽의 주역이 된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정신적 변혁의 상징인 독일의 모습들은 유럽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현재 유럽은 역사상 어느 곳에서도 시도된 적이 없었던 거대한 실험을 하고 있는데 유럽 27개국들이 하나가 되려는 것이다. 정복 혹은 침략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 평화적인 시도는 거의 성공한 것 같다. 유럽의 다양한 국가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였고, 그 결과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알아보는 것은 세계화 시대에 세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서두에서 말하고 있다.

앞에서 이미 긍정적인 시각에서 5개국의 주요한 역사적 사건과 문화를 다루었기 때문에 왜 유럽 5개국인가에 대한 답은 설명이 된 것 같고, 이번에는 비판적 시각에서 보자면 19세기 중엽 산업혁명이 유럽 여러 나라에 파급되어 자본주의가 고도로 성장하자 종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계 여러 지역으로 진출을 시도했다. 즉 선진 자본주의 국가는 국내에서 축적된 잉여 자본을 투자할 곳이 필요했는데 이것은 독점자본주의 단계와 금융자본주의 단계로 변모했다는 뜻이었다.

가장 심각했던 곳은 아프리카 대륙이었는데 지중해 연안의 북부와 일찍부터 네덜란드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남아공을 제외한 아프리카 내륙 지역까지도 모조리 유럽 각국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되었던 것이다. 그 중 가장 끔찍했던 것은 흑인 노예무역을 시작했던 것인데 그로 인해 흑인에 대한 인종 차별은 최근까지도, 아니 지금도 인권 침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유럽적 사고 방식은 동양에 전파되어 아이러니하게도 유럽인들의 편견을 동양인들이 오히려 재생산하고 있는 사례도 가끔 볼 수 있다.

하지만 또 왜 유럽인가? 하면 그들이 사상 유례없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 체제와 공동체를 평화적으로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 27개국을 한 개의 나라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베네룩스 3국이 시작하여 현재는 루마니아, 불가리아까지 가입하여 27개국이 되었는데 같은 유로를 쓰고 하나의 의회, 하나의 행정부, 하나의 법원, 유럽이사회 등 제도적 단일체를 만든 것이다. ‘셴겐 조약’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 시민들은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교육 및 취업의 기회를 동등하게 받고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물론 통합의 과정이 매우 어렵고 선입 회원국과 후입 회원국 간의 경제적 차이도 매우 커서 고통을 분담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단 하나의 국가도 탈퇴하지 않고 지금까지 지난하게 그 과정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에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읽는다고 했다.

이렇게 통합을 하려는 강한 의지는 과거에서부터 ‘하나로 통합된 공동체’였다는 역사적 경험과 함께 반대로 그 어느 대륙보다 수많은 분쟁과 전쟁을 치렀던 대륙이라는 점, 한때 미국과 소련이 주도하는

국제 정치를 보면서 중심 무대에서 밀려났다는 위기감 등이 종합적으로 얹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 책은 수 십 개의 유럽 국가 중 5개국의 인구나 국내총생산, 유럽연합에서 차지하는 의석수, 유럽 연합 예산 분담금 등의 측면에서 월등한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선정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 5개국들은 대부분 서부 유럽에 국한되어 있다.

신항로 개척을 가장 먼저 시작한 포르투갈이나 동방 무역을 선점했던 네덜란드 등의 국가나 복지 국가의 선두에 서있는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 소련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동유럽 국가들을 배제한 이유에 대해선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않다. 마치 기존의 역사 기술이 서유럽 중심 일색이었던 것처럼 국제이해와 평화적 공존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이 책조차 그러한 틀에서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긴다.

또한 유럽연합 역시 현실 사회에선 매우 불안정하고 위태로운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의 경제 파탄을 필두로 연쇄적으로 주변 국가들이 경기 침체에 빠져 있기도 하고, 선발 가입국과 후발 가입국들 간의 극심한 경제적 격차와 상이한 문화적 종교적 배경에 따른 갈등, 표면적으로 평화롭게 보여도 실은 영국과 대륙 국가, 프랑스와 독일의 갈등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난관에도 불구하고 유럽 연합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실패한 시도로 끝날지 두고 보아야 할 일이지만 상호 이해와 평화적 공존을 열망하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책은 여러 면에서 희망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같다.